

조건불리 산촌지역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분석 - 경북 봉화군을 대상으로 -

엄 봉 훈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정보학부 조경학전공

An Analysis on Residents' Attitudes on Ecotourism of Less Favored Mountainous Area

- Focused on the Bonghwa-gun, Gyongbuk Province -

Boong-Hoon Eo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 of Daegu

ABSTRACT : As a supplier of ecotourism, local people are vital for its successful development of ecotourism in Less Favored Mountainous Area(LFMA). A survey was carried on to investigate the residents' attitudes toward ecotourism development. In addition,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of resources for ecotourism was carried out.

Major results are: First, cognition of resident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pproach in tourism development, was very high (76.1 %). And appreciations of residents towards ecotourism were also high(more than 50%), Recently, the understanding of ecotourism is highly increasing. Second, ecotourism development was highly accepted(63%) as a desirable tourism development. And 65% of respondents showed willingness of participation to ecotourism development. Third, valleys were cognized as major ecotourism resources, and as a result of IPA, (unique) plant community, eco-villages, and habitats of wildlifes were in the category of 'Concentrate Here'.

Key words : Ecotourism, IPA, Less favored areas, Local residents' attitudes

1. 서론

종래의 대량적 소비적 형태의 관광은 대규모적이고 제약이 없는 가운데 건물을 새로 짓고 수요를 과다 책정하여 첨두수요를 수용하려고 하며, 관광 행태에 있어서도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부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제까지의 대량관광은 지역경제를 왜곡시키고 환경파괴를 초래하며 지역의 자립적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지역사회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적 향락적 관광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대안관광이다. 즉, 대안관광은 계획적이며, 지역과 연계된 지구계획을 수립하

고, 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보존하며, 개발규모도 평균수요를 지향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개발을 주도하여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며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른바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이다. 대안관광의 형태로 제시된 것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환경관광, 자연관광, 토착관광(indigenous tourism) 등이 있다(Nash와 Butler, 1990, Crossley와 Lee, 1994).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 조정에 연계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북 일원 및 강원도 일대의 조건불리 지역(Less Favored Area)에 분포하는 석탄광업 지역에 대부분의 탄광을 폐쇄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들 지역은 더욱 개발에서 낙후되고, 황폐화되는 등의 심각한 지역개발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대안적 지역개발 방안으로써, 국제적인 카지노 타운 형태의 소비 향락적

Corresponding author : Boong-Hoon Eom

Tel : 053-850-3189

E-mail : candooo@hanmail.net

관광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등의 개발 지향적 방안들을 내놓고 이를 실현시키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단견으로, 심각한 현장에 상환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며, 입지여건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U와 일본과 같은 선진 지역에서는 이들 지역을 '조건불리지역'(Less Favored Area : LFA)으로 규정하여 이들 지역들이 개발에서 낙후된 대신 반대급부로 잘 보전된 양호하고 풍부한 자연환경 자원을 잘 보전하며,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개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윤여창과 유순호, 1995, 농촌경제연구원, 1998).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관광(Ecotourism)은 종래의 관광개발 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대안적 지역개발 개념이다. 생태관광이란 양호한 상태의 자연보존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으로서, 생태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은 자연보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여행자는 문화와 환경, 자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체류형, 체험형 관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생태관광은 녹색관광과 더불어 현재 공동화 되고 있는 농·산촌 환경과 사회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할 수 있는 관광으로서의 의의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건불리 산촌지역의 생태관광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 의식 및 자원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함으로써, 생태관광 형태의 산촌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조건불리지역

산간부, 경사지, 해안 등 자연조건이 불리한 지역(Less Favored Area)에서는 자유경쟁이나 합리화만을 주장하면 농업생산이 중단되고 인간정주가 불가능하여 과소화되고, 이로써 국토공간의 질서가 크게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EU에서는 가능한 한 과소지역에 주민들을 정착시켜 농산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자연·문화환경과 지역공동체를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EU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을 ① 경작하기 어려운 열등지가 대부분이어서 조방적 농업밖에 안되는 지역, ② 농업경제 상태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 ③ 인구가 매우 적고 감소가 진행되어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

운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Wathern, 1992). 즉, 조건불리지역은 "환경보전과 전원의 경관유지를 위하여 농업의 지속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또한 자연 지리적 조건이 열악하여 농산업 생산이나 타산업 활동이 불리한 지역으로 지역의 환경 및 경관보전에의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지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조건불리지역에 준하는 개념으로 "낙후지역"을 그 동안 사용하여 왔다. 낙후지역이라 함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여건의 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하고 생활 및 문화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말한다. 이것의 유사 개념으로는 침체지역, 저개발(부진)지역 등이 있다. 이러한 낙후지역 설정 기준으로는 ①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감소 및 과소지역, ② 국가계획의 개발효과가 미치지 않는 지역, ③ 도시적 토지이용율이 낮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④ 농경지 비율이 낮은 산간오지지역 등이다(엄기철, 1994).

또한 농경연의 연구결과(농촌경제연구원, 1998)에 의하면 조건불리지역의 개념을 "경지조건이 열악하여 농업생산성이 낮고, 경제사회여건이 불리하여 인구유출이 심한 산간, 도서지역으로서 농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경지조건지표와 인구지표가 모두 열악하고 농업의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란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건불리지역에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윤여창과 유순호(1995)가 농산촌 정주환경조성을 통한 국토 활용 체계 고라는 측면에서 한계농지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EU의 조건불리지역과 일본의 중산간지역 농업정책을 고찰한 것이 처음인데, 조건불리지역의 개념과 정책의 내용을 소개한 데 의미가 있다. 유병림 등(1996)이 조건불리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정주공간 구성을 위한 커뮤니티 설계 모형 연구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인 조건불리지역을 정주공간적 의미를 탐색하여 그 개념의 한국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농촌 커뮤니티 건설에 있어 물리적 공간구성의 모형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커뮤니티에 대한 계획적 원리와 설계적 고려요소를 도출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를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에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 개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1998)에서는 한계농지로서의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체의 필요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고, 정책의 도입과 실시를 전제로 직접지불체의 대상, 기준, 지원 방식 등 검토, 제도적 행정적 준비 내용, 예상되

는 문제점 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연구들로, 조건불리 지역의 물리적 조건과 환경조건으로서의 자원요소들에 대한 고찰과, 이를 새로운 친환경적 대안 관광의 형태인 생태관광에 활용하는 문제까지 포괄하여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2. 생태관광

생태관광(Ecotourism)이란 양호한 상태의 자연보존지구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으로서, 생태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은 자연보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여행자는 문화와 환경, 자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체류형, 체험형 관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생태관광의 목적과 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자연경관이나 문화자원 등을 관찰, 체험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고자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 활동에는 대상지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야생동식물을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자연 또는 현지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감을 경험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생태관광은 녹색관광과 더불어 현재 공동화되고 있는 농·산촌 환경과 사회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할 수 있는 관광으로서의 의의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의 연구대상지인 조건불리 산촌지역들은 생태관광의 도입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생태관광은 1965년 Hertzler에 의해 처음 언급된 이래(Wallace, 1992), 9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관광 및 친환경 패러다임의 대두에 따라 개념 및 전략적, 정책적 연구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수 진행되었다. 생태관광의 개념에 대한 언급은, Fennel과 Eagles(1992)가 생태관광은 자연에 기반을 둔 여행이며, 생태관광객들은 자연에 기반을 둔 관광객이라는 간단한 정의를 비롯하여, Eagles(1992)는 생태관광을 자연지향적 경험(nature-oriented experiences)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동기요인은 환경적, 문화적 특징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estern(1993)은 자연에 대한 갈망의 창출과 충족, 생태, 문화 등의 보전을 우선하는 관광이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태관광 참여자(이용자)들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Butler와 Hvenegaard(1988)는 생태관광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일반관광객들보다 고소득층이며, 교육수준도 높은 집단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유기준과 최인묵(1999)에서 재인용). 연령

층도 일반관광객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4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Wilson, 1987). 또한 Kretchman과 Eagles(1990)는 생태관광객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자연에 대한 학습,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자연관찰 등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Crossely와 Lee(1994)는 생태관광과 대량관광의 편익성 비교를 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관광 분야 연구가 90년대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사영(1992)의 생태관광과 인접유사개념에 관한 소개를 비롯하여, 안영면(1997), 최혜경(1998), 박석희(2000), 엄서호와 박창규(2000) 등이 생태관광의 개념에 대한 기존연구 소개 및 고찰을 행하였고, 김대권과 김영태(1998), 김석출(2000), 김성일(2000), 김선희(2003) 등은 생태관광의 이론들을 고찰하면서, 개발방안과 추진전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근래에는 생태관광 참여자로서의 이용객에 대한 분석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용근과 조중현(1998)은 생태관광자의 의식과 성향에 대한 분석을 행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생태관광 성향도 높음을 밝힌 바 있고, 유기준과 최인묵(1999)은 자연지향적 시민단체 종사자들의 생태관광 행동특성에 대한 분석을 행하여, 개인의 환경관과 생활양식이 생태관광 성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또한 조용기(1999)는 생태관광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관광자의 특성분석을 여행 동기, 선호활동, 연령층, 교육수준, 동반자구성, 등의 기존자료들을 소개하고 고찰하였고, 강미희(1999)는 생태관광객의 여행동기 및 태도를 척도 구축과 관광객 유형별로 분석한 바 있다. 이밖에 박선희와 김영선(2001)도 생태관광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행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생태관광 참여자에 있어 수요자 측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어서, 다른 주요 측면인 공급자 측에 대한 조사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오정준(2003)이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서 공급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의 자원 부문을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 유일한 공급 측면의 연구라 할 만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동향을 참고하여, 현재로서는 연구가 전무한 상태로 판단되는 생태관광의 주요 부문의 하나인 공급자, 즉 생태관광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내용

1. 대상지역 선정

앞장에서 검토된 바 있는 조건불리지역(LFA)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군단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 자료들을 입수하여 검토한 후, 대상 후보지역으로 경북 문경시와 영주시, 봉화군 등 3개 지역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인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본 연구진은 상기 3개 시/군 단위지역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시장/군수 면담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2001년 7월 27일-30일, 4일간), 현장 여건과 시장/군수의 생태관광에 대한 정책 의지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봉화군 전 지역(9개 읍 면)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대상지역으로 봉화군이 선정된 이유로는 먼저, 조건불리산촌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장 많고(봉화읍 외 9개 면이 모두 해당), 경북 북부 11개 시/군 중 문화관광 자원의 분포(총 477건)가 안동(680건) 다음으로(2위), 타 시/군(130-300여건)에 비해 현저히 많으며, 입지여건상 개발나후에 따른 양호한 청정 자연환경과 양호한 생태자원 및 잠재자원을 갖고 있으며, 생태관광에 대한 정책의지 및 방향설정이 확고하여 본 연구대상지 여건에 가장 부응하였기 때문이다.

2.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가. 조사 대상 및 내용

조사대상은 봉화군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봉화군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읍, 면별 인구수와 연령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2단계 층화표집된(stratified sampling) 표본집단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등의 환경친화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관광에 대한 주민의 인식정도 및 협조의사 등에 대한 의식조사 부문과 생태관광 자원유형별 중요도 인식 및 현재상태의 활용정도(성취도)를 평가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의식조사 부문은 예시된 명목척도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생태관광 자원의 인지도는 개방형질문에 대해 자유기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생태관광 자원의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9개 자원변수들에 대해 5점 Likert Type 척도를 제시하여 자원유형별 중요도와 활용도(성취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나. 조사 기간 및 방법

조사기간은 2002년 3월에서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봉화군의 협조를 얻어 각 읍, 면별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관내 부녀회, 농민회 등의 조직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 및 회수를 하였다. 따라서 총 배부된 500부 중 498부가 회수되어 매우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대신 응답자 중 일부 문항 별로 미응답 문항이 다소 있었는데, 이 경우는 결측치로 처리하여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 자료의 분석

조사된 자료는 PC용 통계분석 Package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신상사항과 의식부문 문항들은 빈도수에 따른 백분율을 구했고, 생태관광 자원의 인지도는 기입된 자원들을 집계하여 그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9개 생태관광 자원유형별 중요도 및 활용도(성취도) 변수들은 각각 평균치(Mean)와 표준편차(S.D.)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이렇게 구한 생태관광 자원유형별 중요도 및 성취도 평가 자료의 평균치들을 활용하여, 마케팅 분석 기법의 하나인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기법(Martilla와 James, 1977)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론 및 고찰

1. 응답자의 기본속성

응답자의 기본적인 속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성별 인구를 층화표집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군내 행정조직을 이용한 설문지 배포와 회수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주로 공무원들과, 남성들이 많이 응답한 결과로 추정된다. 연령별 응답자는 층화표집 시 설정된 연령별 집단의 수에 비해 60대 이상 노인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아직 도입초기 단계인 생태관광의 특성상 이들 집단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생태관광에 공급자로 참여할 계층인 30대 청년층 및 4,50대 장년층 집단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별 응답자수는 층화표집 시 배분된 인구수별 응답자 배분에 거의 일치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군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인정된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4\%$ 이다.

그밖에, 직업 분포는 주로 농업이 가장 많아 43.2%를 나타내었고, 공무원(22.2%), 회사원(9.0%) 및 주부

표 1. 응답자의 기본 속성

구분		구성(인)	비율(%)
성별	남	359	74.2
	여	125	25.8
연령	20세이하	9	1.9
	21세이상~30세이하	96	20.6
	31세이상~40세이하	145	31.0
	41세이상~50세이하	134	28.7
	51세이상~60세이하	73	15.6
	61세이상	10	2.1
직업	공무원	94	22.2
	농업	183	43.2
	상업	33	7.8
	학생	16	3.8
	주부	34	8.0
	회사원	40	9.4
	자영업(사업가)	4	0.9
	기타	20	4.7
거주지	봉화읍	125	26.5
	물야면	39	8.3
	봉성면	45	9.6
	법전면	35	7.4
	춘양면	36	7.6
	소천면	43	9.1
	석포면	37	7.9
	재산면	37	7.9
	명호면	36	7.6
	상운면	38	8.1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에 직간접으로 종사하게 되는 집단이 주로 농업인과, 공무원 집단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자료의 외적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주민의 생태관광에 대한 의식

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

먼저 봉화군민의 생태관광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해 거주민들에게 봉화군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관광휴양지를 조성한다 했을 때의 지지도를 묻는 항목에서 162명(32.5%)이 '적극 찬성'하고 있고, 217명(43.6%)이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76.1%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봉화군지역이 조건설리지역 산촌지역이 한계농업지역임을 인식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 형태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지지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지 조성 시 주민의 지지도

구분	응답자수(인)	비율(%)
적극 찬성한다	162	32.5
찬성하는 편이다	217	43.6
잘 모르겠다	48	9.6
반대하는 편이다	51	10.2
적극 반대한다	20	4.0
계		100

나. 주민이 원하는 관광개발 형태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휴양지의 바람직한 유형을 질문한 결과, 외지자본은 유치할 수 있으나, 환경파괴를 수반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축소되는 '대규모 종합휴양단지' 형태는 44명으로 응답자의 9.0%만이 찬성하였고, 자연환경을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주민의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은 '보존형 자연휴양지'는 136명으로 28%,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이를 생태관광 형태로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생태관광지'는 전체의 306명, 즉 63%가 찬성하였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자연환경의 파괴는 원하지 않는 이른바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소득도 기대할 수 있는 생태관광 형태의 개발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다. 바람직한 관광 개발 및 운영주체

'생태관광 형태의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 개발 및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치(조합 등)체가 주도'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7.5%, '지방자치단체'(군, 면)가 27.6%, '외지자본/기업체'이 4.9%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주민 자치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한 유형으로, 주민의 자치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적 관광개발 및 운영 형태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으로 판단된다.

표 3. 주민이 원하는 관광휴양지 형태

구분	응답자수(인)	비율(%)
대규모 종합휴양단지	44	9.0
생태관광지	306	63.0
보존형 자연휴양지	136	28.0
계	486	100

표 4. 바람직한 개발/운영 주체

구분	응답자수(人)	비율(%)
주민자치(조합)체	328	67.5
지방정부(군,면)	134	27.6
외지자본/기업체	24	4.9
계		100

라.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 인지도

지역 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잘 알고 있다'가 84인(16.9%)으로 나타났고, '약간 안다'가 234인(47.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잘 모른다'가 144인(29.0%)으로, '전혀 아는 바 없다'가 35인(7.0%)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편이 과반수를 접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인식이 '잘 모른다' 및 '전혀 아는 바 없다' 라는 응답의 비율이 36%에 이르고 있어, 생태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와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어려운 편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용근과 조중현(1998)의 일반 생태관광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 인지도 결과치인 '잘 알고 있다' 2%, '알고 있다' 23%보다는, 훨씬 높은 인지율을 보인 것으로, 불과 5-6년 사이에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이 매우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이다.

마. 생태관광의 기대수익성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그 일부분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른바 생태관광을 통하여, 민박, 체험학습 안내, 자연체험 및 학습 등의 형태로 체류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생태관광의 수익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는 '수익성이 있겠다'는 응답이 328인(67.5%)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생태관광 형태의 관광개발이 지역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주5일제 근무제의 도입 등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와 친환경적인 체험형, 체류형 관광의 형태로 관광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 인지도

구분	응답자수(人)	비율(%)
잘 알고 있다	84	16.9
약간 안다	234	47.1
잘 모른다	144	29.0
전혀 아는바 없다	35	7.0
계		100

표 6. 생태관광의 기대 수익성

구분	응답자수(人)	비율(%)
수익성이 있겠다	328	67.5
잘 모르겠다/관심없다	134	27.6
수익성이 없겠다	24	4.9
계		100

표 7. 생태관광에 대한 참여의사

구분	응답자수(人)	비율(%)
적극 참여하겠다	274	65.1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122	24.6
참여하지 않겠다	51	10.3
계		100

바. 생태관광에 대한 참여의사

지방자치단체(군) 혹은 주민자치체(조합)에서 이러한 생태관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때, 주민들의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274인(65.1%)의 응답자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보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1인(10.3%)에 지나지 않아 응답자의 신상사항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이러한 지역의 생태관광 육성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사. 생태관광에 정책적/비용분담 협조용의

환경친화적인 패러다임에 입각한 생태관광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수적이며, 오물처리제한, 환경보호사업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자발적으로 협조 참여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0%(281인)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높은 협조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위의 적극적인 참여의사 표명 비율인 65.1%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것이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관심없다'는 응답도 35.9%(177인)로,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불신의 입장도 7.1%(35인)로 나타나, 아직 인식 부족 내지 참여의사 부족불신 의한 비교적 많은 편이

표 8. 정책적/비용분담 협조용의

구분	응답자수(人)	비율(%)
적극 협조하겠다.	281	57.0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177	35.9
협조하지 않겠다.	35	7.1
계		100

어서, 이들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하겠다.

3. 지역주민의 생태관광 자원 인지도

봉화 군민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생태관광 자원요 소별 인지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 개방형 설문으로 봉 화군의 자연, 문화 환경 중에서 자연체험/역사/문화/관 찰학습 목적의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나 는 대로 적게 한 결과, 아래의 표 9와 같은 결과로 그 빈도수가 집계되었다.

청량산 도립공원이 76회 출현하여 가장 많이 인지되 었는데, 이는 봉화지역의 유일한 법정자연공원(국, 도립 공원)으로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의 주요 자연공원으로 명성을 가진 공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사미 정 계곡(26회), 청옥산 계곡(20회), 구마동 계곡(18회), 백천 계곡(14회), 고선 계곡(13회) 등의 계곡들이 비교

표 9. 생태관광 자원 인지도

자원(장소)	빈도	자원(장소)장소	빈도
청량산 도립공원	76	가평1리 서설당	1
사미정 계곡	26	문수산	1
청옥산 계곡	20	옥선사	1
구마동 계곡	18	축서사	1
백천 계곡	14	물야면 개단리 농업체험마을	1
석천 계곡	13		
고선 계곡	13	두내 약수탕	1
오전 약수탕	12	고선리 마방(백담계곡)	1
운곡천	8	구양서원	1
낙동강 상류	6	홍계사 도산암	1
명호천(땀)	5	삼계서원	1
향교	5	도명2리 저수지	1
참새골	5	호골산	1
우구치리 계곡	4	석포면 승부리	1
반야 계곡	4	석포면 열목어 서식지	1
석포 대현	4	내성천	1
달실 마을	4	갈망 소공원	1
태백산 사고지	3	계서정	1
석천정	2	풍전리 마을	1
각화사	2	소천면 장군봉	1
남회룡 계곡	2	오록	1
외삼 저수지	2	북지리 마애여래조상	1
매당2리 계곡	1	신담	1
삼동댐	1	소천리 가무	1
서벽 약초시험장	1	거재암	1
갈래천	1	법천면 소선리 마을	1

적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봉화군 지역이 조건불리 산촌 지역으로서 양호한 계곡 자연환경들을 다수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들 계곡 지역들이 향후 봉 화군의 생태관광 자원의 주요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밖에 석천(13회), 운곡천(6회), 낙동강상류(6회), 명호 천(6회) 등의 하천과, 오전 약수탕(12회), 참새골(5회), 닭 실마을(4회), 석천정(2회), 각화사(2회), 두내약수탕, 계서 정 등과 기존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등이 인지되고 있는 추세였다. 그밖에 개단리 농업체험마을, 풍전리, 소천리, 소선리 등 마을들도, 농업체험과 같은 녹색관광과 연계된 생태관광의 주요 자원들로 인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지된 자원요소의 빈도가 전체 설문 응답자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자유응답식 설문에 따른 기업식 설문방식을 채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반 주민들의 인지특성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봉화군의 자원유형별 예시 자료

	생태관광 자원	자원의 종류	봉화군의 활용 가능한 자원
1	지형/지질 자원	계곡, 기암, 산림, 동굴, 화석지, 화산, 단층지역	청량산, 오전약수, 다덕약수, 벽천계곡, 관창폭포, 기암괴석, 공룡발자국, 동굴 등
2	야생동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류서식지, 곤충서식지	열목어 서식지, 수달 서식지, 반딧불이 서식지, 메뚜기 농장, 보호조류 서식지 등
3	(희귀/특이) 식물 군락지	희귀식물자생지, 고산지대 식생	춘양목 군락지, 희귀식물 자생지 등
4	하천 및 수자원	하천, 습지 생태자원	낙동강 상류 하천/소하천 생태계
5	생태마을 자원	유기농법, 공해가 없는 자연환경	귀농단지, 전원주택단지, 유기농 단지 생태마을 단지 등
6	역사/문화 자원	문화유적, 주거지, 주민생활상, 민속 관광 이벤트	달실마을, 사찰, 고택, 정자/정사, 당/각/재, 서당, 향교, 서원, 유물/유적, 은어축제, 송이축제, 산나물축제, 돼지털축제, 눈꽃축제, 청량문화제 등
7	농업체험 자원	농림업 농장, 밭, 유기농단지	고랭지 채소 체험학습, 버섯따기 체험, 오리농법, 관광농원 과일따기, 주말입대농원 등
8	자연체험 자원	계곡, 능선, 산림	지도찾아가기, 등산로 탐방, 능선트래킹, 사미정계곡, 청옥산계곡, 별자리찾기, 산악자전거타기, 자연휴양림 등
9	특산물 자원		달실한과, 송이, 표고, 사과, 딸기, 복수박, 고추, 대추, 감자, 당귀, 약초 등

4. 생태관광 자원유형별 중요도/성취도 평가

가. 생태관광 자원의 유형

생태관광 자원의 유형을 표 10에서와 같이 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봉화군에 있어 이들 유형에 해당하는 자원들을 예시자료로 제시한 후, 각 자원유형별로 환경친화적인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중요도와 성취도(활용도)를 각 5점 「리커트」 척도에 평가하게 하였다. 이 9가지 자원유형의 구분은 앞의 자원인지 자료들과, 기존 연구들(한국관광공사, 1996, 이경재 등, 1997, 김홍운, 1998, 한상겸, 2000) 등의 생태관광 자원 자료들을 참조하여 본연구자가 새롭게 유형화 하여 제시한 것이다.

나. 자원유형별 중요도 평가

생태관광 자원의 유형별 중요도 평가결과, 표 11과 같이 9개 유형이 대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한 점수인 4.0을 상회하는 중요도 평균치를 보였다. 특히 하천/계곡 및 수자원이 평균치 4.43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며, 야생동물 서식지(4.30), (희귀/특이)식물 군락지(4.30) 및 지형/지질 자원(4.24)과 특산물 자원(4.24)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다. 자원유형별 성취도(활용도) 평가

자원유형별로 현재 상태에서의 활용 정도(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앞의 중요도 평균치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이들 자원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까지는 그 활용정도(성취도)가 미약함을 반영하고 있다.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자원유형은 특산물 자원으로 활용도 평균치가 보통인 3.0을 상회하는 3.46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역사/문화 자원(3.11), 지형/지질 자원(3.01)으로 이들은 보통(3.0) 이상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유형으로는 생태마을 자원(2.64), 식물군락지(2.69), 농업체험자원(2.71) 등이었다.

표 11. 생태관광 자원유형별 중요도 평가결과

번호	자원 유형	Mean	S. D.
1	지형/지질 자원	4.24	1.01
2	야생동물 서식지	4.30	1.02
3	(희귀/특이)식물 군락지	4.25	0.98
4	하천/계곡 및 수자원	4.43	0.88
5	생태마을 자원	4.02	1.03
6	역사/문화 자원	4.19	0.98
7	농업체험 자원	3.94	1.00
8	자연체험 자원	4.09	0.98
9	특산물 자원	4.24	0.95

표 12. 자원유형별 현재 상태에서의 활용도

번호	자원 유형	Mean	S. D.
1	지형/지질 자원	3.02	1.11
2	야생동물 서식지	2.85	1.16
3	(희귀/특이)식물 군락지	2.69	1.11
4	하천 및 수자원	2.92	1.12
5	생태마을 자원	2.64	1.10
6	역사/문화 자원	3.11	1.16
7	농업체험 자원	2.71	1.13
8	자연체험 자원	2.86	1.11
9	특산물 자원	3.46	1.12

라. 중요도/성취도 실행격자 분석

이러한 결과를 <중요도/성취도 분석(IPA)기법에 의거 실행격자로 배치한 것이 그림 1이다. Y축의 중요도와 X축의 성취도(활용도)를 기준으로 각 자원유형별 평균치를 배치한 결과, 1사분면(중요도 4.0이상이면서 활용도 3.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원 유형, 즉 중요도도 높고 성취도도 높아서,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면 되는(Keep Up the Good Works) 유형'은 특산물 자원(9), 역사/문화 자원(6), 및 지형/지질 자원(1) 등의 3개 자원유형만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4사분면(중요도는 4.0 이상으로 중요한데 활용도는 3.0이하로 보통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즉 '우선적 시정이 필요한(Concentrate Here) 유형'이 나머지 대부분의 자원유형들이었다. 특히 식물군락지 자원(3), 생태마을 자원(5) 야생동물 서식지(2) 등이 중요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향후 이들 자원 유형들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활용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체험 자원(7)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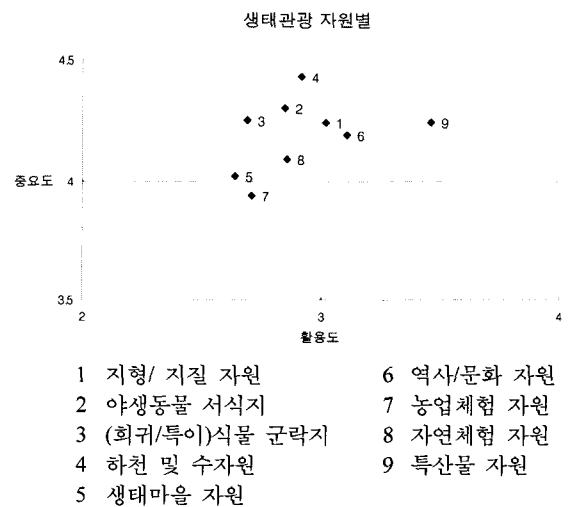


그림 1. 자원요소 유형별 중요도/활용도 평가

가되었는데, 이는 향후 체험형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위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견된다.

V. 결론

조건불리 산촌지역인 봉화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해당지역 주민의 의식 및 자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봉화군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관광, 즉 생태관광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는 전체 응답자의 76.1%로 매우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었고, 지역 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가 16.9%, '약간 안다'가 47.1%로 나타나, 생태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와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어려운 편이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할 때 불과 5-6년 사이에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추세였다.

둘째,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휴양지의 바람직한 유형은, 생태관광 형태에 대한 지지가전체응답자의 63%에 이르러, 대다수가 자연환경의 파괴는 원하지 않는 이른바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소득도 기대할 수 있는 생태관광 형태의 개발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셋째, 생태관광 형태의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시 개발 및 운영의 주체로는 '지역 주민들의 자치(조합 등)체가 주도'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7.5%로 압도적으로 주민 자치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65.1%가 생태관광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한 유형으로, 주민의 자치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적 관광개발 및 운영 형태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으로 판단된다.

넷째, 자원인지도는 봉화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계곡형 자연환경 자원들이 주로 주요자원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중요도-성취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식물군락지 자원, 생태마을자원, 야생동물서식지 등이 중요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이들 자원 유형들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활용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본고는 현재 연구가 전무한 상태인 생태관광의 주요 부문의 하나인 공급자, 즉 생태관광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추후, 이들 생태관광 공급자들의 의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마케팅기법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1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강미희, 1999, 생태관광객의 여행 동기 및 태도,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37
2. 김대권, 김영태, 1998, 생태관광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관광정책학회지 4(1) : 21-39
3. 김사영, 1992, 생태관광과 인접유사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학회지 2 : 203-221
4. 김석출, 2000, 생태관광 개발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주대학교 관광학논총, 62-79
5. 김선희, 2003, 한국의 생태관광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정보학회 관광정보연구 14 : 49-69
5. 김성일, 2000, 특집 :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발전방향 3. 생태관광 : 지속가능관광의 가능성, 국토연구원 국토 263 : 31-39
6. 김용근, 조중현, 1998, 생태관광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2(2) : 156-162
7. 김홍운, 1998, 한국생태관광의 실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사회과학논총 17 : 579-617
8. 농촌경제연구원, 1998.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9. 박석희, 2000, 생태관광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관광산업학회 관광연구 14 : 67-89
10. 박선희, 김영선, 2001, 생태관광에 관한 관광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학회 15 : 91-114
11. 안영면, 1997, 생태관광과 유사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8 : 251-266
12. 엄기철, 1994, 특정낙후지역 개발제도 개선방안, 농어촌발전위원회 발표자료집 : 125-144
13. 엄서호, 박창규, 2000, 대안관광으로서 생태관광의 적용, 경기대 소성관광종합연구소논문집 4 : 83-104
14. 오정준, 2003,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8(4) : 610-629
15. 유기준, 최인묵, 1999, 자연지향적 집단의 생태관광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3(2) : 167-175

16. 유병림 외, 1996, 정주공간 구성을 위한 커뮤니티 설계 모형 연구 : 조건불리지역 산촌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2) : 67-80
17. 윤여창, 유순호, 1995, 농산촌 정주환경 조성과 국토 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 : 103-122
18. 이경재 외, 1997, 농촌마을 생태관광지 기본계획, 농림부 농특과제연구보고서
19. 조용기, 1999, 생태관광의 발전과정과 생태관광자 특성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녹지환경논총 2 : 127-147
20. 최혜경, 1998, 생태관광지 개발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품질시스템학회 관광품질시스템연구 4(7) : 279-295
21. 한국관광공사, 1996, 생태관광 개발방향과 전망
22. 한상겸, 2000,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논문집 6 : 135-147
23. Crossley, J. and B. K. Lee, 1994, Ecotourists and Mass Tourists: A Difference in 'Benefit Sought',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Proceedings, Oct. : 22-30
24. Eagles, P.F.J., 1992, The travel Motivation of Canadian Ecotourists. Jour. of Travel Research 31(3) : 64-66
25. Fennel, A.D. and P. Eagles, 1990, Ecotourism in Cos-tarica: A Conceptual Framework, Jour.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8(1) : 22-34
26. Kretchman, J.A. and P. Eagles, 1990, An Analysis of the Motives of Ecotourists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Canadian Population, Society and Leisure 13 : 499-508
27. Martilla, J.A. and J.C. James,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 of Marketing 41(1) : 77-79
28. Wallace, D.R., 1992, Ecotourism, Landscape Architecture 82(2) : 36-39
29. Wathern, P., 1992, Less Favored and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 European dimension to rural environment, In Howarth and Rogers(eds.),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Land Use-Law and Policy Issues in Rural Areas. Univ. of Wales Press, Cardiff.
30. Western, D., 1993, Defining Ecotourism. Lindberg, K. & Hawkins(eds.) Ecotourism: A Guide for Planners and Managers, The Ecotourism Society 7-11
31. Wilson, M.A., 1987, Nature Oriented Tourism in Educator: Assessment of Industry Structure and Development needs, FPEI Working Paper 20 : 1-37